

동양 고전에서 서양 철학까지...문학으로 길을 여는 인문학



박성천 기자가 추천하는 책

상처와 화살, 인문학으로 세상 읽기

임현영 지음

인문학의 위기라고 한다. 너무 많이 들어 귀에 익숙할 정도다. 인문학 위기에 대해 전공자나 연구자뿐 아니라 일반인들도 그러한 흐름에 고개를 끄덕인다.

정말로 인문학이 위기일까. 어떤 이는 인문학 자체가 위기가 아니라 '인문학을 외면하는 시대'의 위기라고 한다. 사실은 후자가 더 설득력이 있다.

눈을 뜨면 AI시대, 인공지능 시대, 4차 산업화시대니 하는 말들이 들려온다. 이제는 귀가 따갑도록 들은 나머지 더 이상 낯설지가 않다.

자연히 인문학은 설 자리가 없는 것처럼 보인다. 인문학을 공부하는 사람들도 '인문학에는 희망이 없다'는 식의 '자기 비하'를 하기도 한다.

그러나 여전히 인문학은 고유의 힘이 있으며 그 인문학을 최전선에서 떠받치고 있는 문학의 힘을 믿고 있는 이들이 있다. 문사철로 대변되는 인문학 중에 문학을 가장 앞자리에 두는 것은 인간의 의식과



'상처와 화살, 인문학으로 세상 읽기'는 동양 고전에서 서양 철학까지 문학을 매개로 인문학을 접근한 책이다. "영혼의 비타민이라는 문학은 그리움의 대명사"라고 말하는 임현영 민족문제연구소장(국립한국문화관 관장)의 노고와 열정이 투영된 역작이다. 서양철학, 동양철학, 사회학 등도 포괄하고 있어 인문학의 다양한 분야를 아우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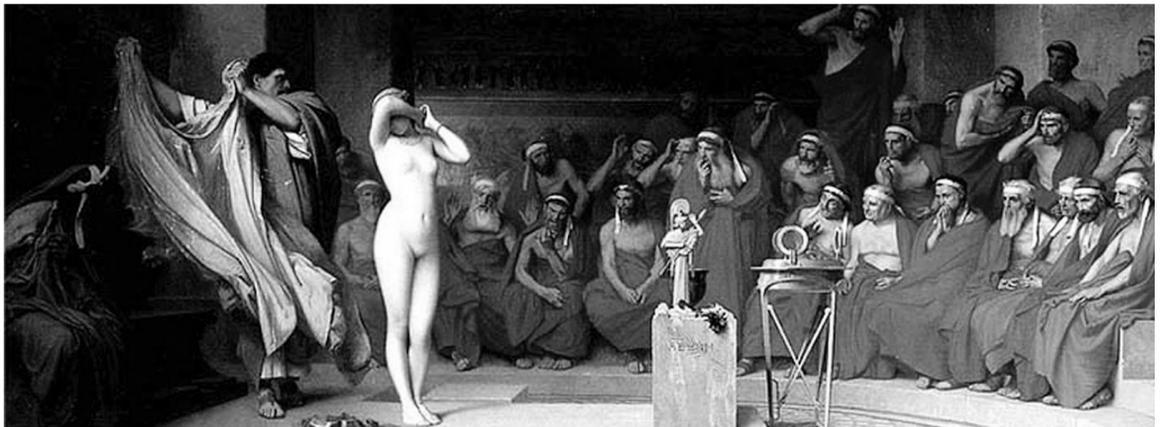
오랫동안 문학평론가로 활동해온 임 소장은 전두환 시기에 두 차례 옥고를 치른 바 있다. 지금까지 '불확실 시대의 문학', '대화', '문학의 길 역사의 광장-문학가 임현영과의 대화(대담 유성호)' 등을 썼다.

책은 모두 6부로 구성돼 있다. 1부 '진짜 아름다움과 가짜 아름다움', 2부 '악인들의 천국', 3부 '나약한 인간, 신앙에 빠지다', 4부 '일관성 쌍생아인 문학과 역사', 5부 '전쟁과 평화, 그리고 혁명', 6부 '전위주의 미학을 향한 모험' 등이다. 각 부는 몇 개의 장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문학 전공자와 교양을 생각하는 일반인들 모두 재미있게 접근할 수 있게 했다.

책을 관통하는 키워드들은 '미', '역사', '종교,

행위 등을 다면적이고 중층적으로 다루기 때문일 터다.

경계가 의식주를, 철학이 사유를, 정치학이 정치적 행위에 초점을 둔 반면 인문학, 특히 문학은 인간의 감정, 정적 행위, 철학적 사유와 관계의 갈등 등을 포괄한다.



프랑스 화가 장 레옹 제롬이 그린 '법정에 선 프리네'. 1861년 작품으로 "이렇게 아름다우니 제발 용서해달라"는 세상에서 가장 짧은 변론 한마디로 그리스 최고 법정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미녀 프리네의 모습을 담고 있다.

'평화', '미학' 등이다. 각각의 내용들은 독립적이면서도 연계돼 있어 마음이 가는 부분부터 읽어도 무방하다.

윌트 호수가 세계 평화 운동의 상징적 공간이 된 것은 헨리 소로우의 영향 등에서 비롯됐다. 그는 1845년 윌트 호숫가에 작은 오두막집을 짓고 2년 2개월여를 거주했다. 당시 체험을 기록한 '윌트-숲속의 생활'은 이후 많은 이들에게 영감과 변화를 주었다. "진실로 바라건대 당신 내부에 있는 신대륙과 신세계를 발견하는 콜럼버스가 되라"는 명구는 독

자들의 가슴을 뛰게 했다.

대부분 사람들은 소로우를 '윌트'의 저자로만 안다. 그는 흑인노예제를 반대한 인권운동가이기도 했다. 인두세를 거부해 감금당하기도 했으며 "지배하지 않는 정부가 최상의 정부다"라는 명언이 담긴 '시민 불복종'을 발간하기도 했다.

소로우의 평화사상은 이후 내로라하는 세계적인 작가와 명사들에게 전이됐다. 톨스토이를 비롯해 에이츠, 헤밍웨이, 실클레이 루이스, 마크 트웨인 등이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쳤다.

저자는 상처는 문학에 있어 필수불가결한 요소라고 본다. 상처를 딛고 평화를 견인한 그리스 신화의 영웅 필록테테스의 이야기가 이를 방증한다. 천하무적의 활을 갖고 있었기에 악취가 풍기는 상처에도 불구하고 전쟁을 멈추게 했다는 것이다.

임 소장은 "문학예술 또한 궁극적으로 감내해야 할 주제는 오로지 평화이다"며 "이런 모든 논제를 두루 살필 수 있는 안목을 길러 주는 것이 인문학적인 통섭의 문학일진대"라고 언급한다. <보리·3만원>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10대에게 힘이 되어준 한마디

정호승 지음

시인 정호승이 청춘에게 건네는 따뜻한 문장들을 한 권에 담았다. 신간 '10대에게 힘이 되어준 한마디'는 방황과 불안을 지니고 있는 청소년들에게 위로와 용기, 삶의 방향을 전하는 에세이다. 짧은 한마디의 힘을 믿는 시인의 마음이 고스란히 담겨 있다.



책은 10대를 대상으로 하고 있지만, 나이를 넘어 누구에게나 필요한 문장들로 채워져 있다. 목표와 실패, 불안과 성장처럼 살아가며 누구나 한번쯤 고민하는 이야기를 시인의 언어로 풀어낸다.

시인은 작가의 말에서 어린 시절 어머니에게 들었던 한마디가 삶을 지탱하는 힘이 되었다고 고백한다. "괜찮다, 다시 해봐라", "지금도 늦지 않았다"는 말은 실패 앞에서 멈춰 선 순간마다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용기를 주는 문장이었다. 그 기억에서 출발한 책은 청춘에게 전하고 싶은 위로의 문장들을 모아 완성됐다.

책에 담긴 글들은 짧지만 깊다. '속도보다 방향이 중요합니다', '별을 보려면 어둠이 필요합니다', '실패에는 성공의 향기가 납니다', '모든 벽은 문입니다', '나만의 속도에 충실하세요' 같은 문장들은 명언처럼 간결하지만 독자의 삶 속에서 오래 머무는 울림을 남긴다. 시인의 경험과 깨달음, 동서고금의 이야기들이 어우러지며 한 문장 한 문장이 삶의 이정표처럼 다가온다.

시인은 이 책이 "배가 고프다 먹어야 하는 밥 같은 책"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한다. 위로가 필요한 순간 펼쳐 읽을 수 있는 문장집이자, 현재와 미래를 건너는 길잡이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다. 불안과 선택의 갈림길 위에서 서 있는 청춘에게, 또한 한때 그 시간을 지나온 어른들에게도 조용한 응원이 되는 책이다. <비채·1만8500원>

/이보람 기자 boram@kwangju.co.kr

답답한 날엔 화학을 터뜨린다

장흥제 지음

흰 가운에 안경, 어려운 용어와 알 수 없는 물질로 가득한 실험실. 흔히 '과학자' 하면 떠올리는 이미지다. 하지만 광운대 화학과 교수 장흥제는 그 틀에서 한참 벗어난 인물이다. 투박한 말투로 술과 독, 폭발 같은 주제를 거리낌 없이 쏟아내고, 방송과 유튜브를 오가며 화학을 대중의 언어로 풀어내는 화학자다. 그가 최근 '답답한 날엔 화학을 터뜨린다'를 펴냈다.



책은 폭발을 다룬다. 폭발은 화학 반응이 만들어내는 가장 극단적인 에너지 방출이며, 동시에 인간이 물질을 다루고 통제해 온 역사 그 자체다. 저자는 폭발이 인류에게 남긴 흔적을 따라가며 '힘을 구현하는 과학'으로서 화학의 본질을 되짚는다.

구성은 카운트다운 형식이다. 10초 전에 시작해 1초 전에 지나 'BOOM!'으로 마무리된다. 독자는 마치 실험실에서 버튼을 누르듯 직전의 순간처럼 폭발을 둘러싼 역사와 원리 속으로 빨려 들어간다.

책은 흑색화약의 등장부터 다이내마이트와 TNT, 핵무기까지 폭발의 진화를 따라간다. 흑색화약으로 탄생한 초기 총포는 갑옷과 기사 문화를 무력화시키며 중세의 질서를 무너뜨렸고, 이후 폭발의 발전은 전쟁을 더욱 거대하고 잔혹한 방향으로 몰아갔다. 그러나 폭발이 남긴 영향은 전쟁에만 머물지 않았다. 산을 뚫어 터널을 만들고, 땅속을 파헤쳐 광물을 캐내고, 산업을 확장시키는 힘 역시 폭발에서 비롯됐다.

저자는 화학을 '이론을 현실로 만드는 기술'로 정의한다. 물리학이 힘의 원리를 설명한다면, 화학은 그 힘을 물질로 구현하는 학문이라는 것이다. 특히 우주 산업이 급성장하는 시대, 폭발은 전쟁의 기술을 넘어 로켓 추진과 연료 개발을 좌우하는 미래 산업의 핵심으로 떠오르고 있다. <휴머니스트·2만원>

/장혜원 기자 hey1@kwangju.co.kr

내 작은 숲속 오두막으로

패트릭 허치슨 지음, 유혜인 옮김

도시의 삶은 편리하지만 그 편리함이 때로는 삶의 방향을 흐릿하게 만들기도 한다. 직장과 집을 오가는 반복된 일상 속에서 "이게 내가 원하던 삶인가"라는 질문이 불쑥 고개를 드는 순간이 있다. '내 작은 숲속 오두막으로'는 그런 불안과 방황의 한복판에서 한 청년이 충동적으로 숲속 오두막을 사버리며 시작되는 에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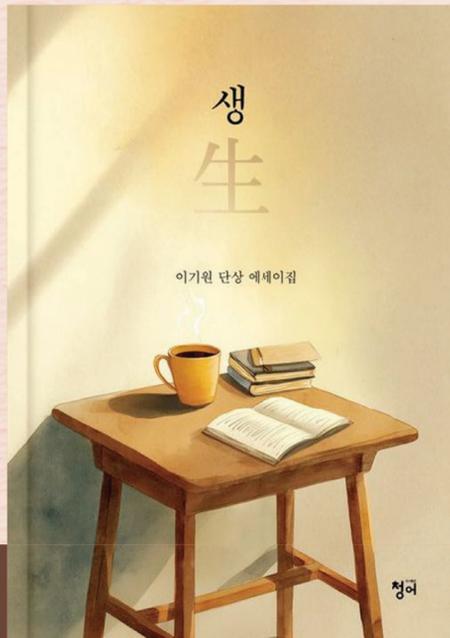


저자 패트릭 허치슨은 미국에서 지역 광고 카피라이터로 일하던 평범한 청년이었다. 여행 작가가 되고 싶었지만 현실적인 사정으로 도시에서 직장 생활을 이어가던 그는 어느 날 종교 거래 사이트에서 허름한 오두막을 발견한다. 패트릭은 목공이나 건축에 대해 아는 것이 거의 없는 상태에서 오두막을 덜컥 구입한 뒤 주말마다 숲으로 들어가 수리를 시작한다.

책은 오두막을 고쳐가는 6년의 시간을 따라간다. 낡은 지붕과 바닥을 손보고 무너질 듯한 천장을 뜯어낸다. 때로는 산사태로 길이 막히는 상황도 겪는다. 공구 사용법도 서툴고 일은 매번 계획대로 흘러가지 않는다. 오두막은 생각보다 훨씬 불편하고 비효율적인 공간이다. 하지만 그 불편함 속에서 저자는 뜻밖의 평온을 발견한다. 도시에서는 머릿속이 늘 복잡했지만 숲에서는 해야 할 일이 분명하다. 나무를 자르고 못을 박고 고장 난 부분을 고치며 시간을 보내는 동안 마음은 조금씩 가라앉는다. 완벽해야 한다는 강박은 느슨해지고 실수도 다시 해보면 된다는 감각이 자리 잡는다.

오두막을 고치는 과정은 결국 저자 자신의 삶을 고치는 일로 이어진다. 바닥이 썩어 있으면 뜯어내고 새로 깔아야 하듯, 외면해왔던 불안과 무기력도 마주해야 한다는 사실을 깨닫는다. 해결 방법을 몰라 불안해하면서도 끝내 유튜브를 찾아보고 규정을 뒤져가며 답을 찾아낸다. <웅진지식하우스·1만8800원>

/장혜원 기자 hey1@kwangju.co.kr



이기원 단상 에세이집

누가 호박꽃도 꽃이냐고 묻길래 가장 실속 있는 꽃이라고 대답했다. 애호박은 개당 1천 원이 넘고, 황토빛으로 물들인 채 노년의 아름다움을 자랑하는 연로한 호박은 개당 5천 원이 넘는다. 마누라 꽃이기도 한 노년의 호박꽃은 비록 찬란하진 않지만 실속과의 아름다운 꽃이다.

사랑의 프러포즈와 축하나 애도를 표할 때도 꽃이 대변인 역할을 한다. 꽃은 여인과 계절과 색깔과 향기를 아우르며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못사람들에게 사랑받는 식물이 아닐까?

—본문 「꽃」 중에서

태어날 생(生)이냐, 살아갈 생(生)이냐!!

영광의 사나이 이기원이 서민들의 삶과 애환을 오롯이 보듬고 달린다.

이기원

1957년에 태어났다. 국문학을 전공했고 육군대학을 졸업했다. 18년 동안 직업군인으로 복무했고 전역 후 30년 동안 사회생활을 하면서 세상을 배우고 있다. '바람 나그네', '회전목마 인생', '밥벌레의 행복', '이방인', '생(生)' 등을 펴냈다.

- 인터넷 판매: 교보문고, 영풍문고, 예스24, 인터파크, 알라딘
- 서점 판매: 광주(충장서림, 영풍문고) 나주(종로서적), 목포(연산서적) 순천(중앙서점), 전주(영풍문고, 혁신문고) 익산(동아서점)

312쪽 | 값 16,000원